

• CEO메세지 •

CEO와 위기의식

노범석/메타커뮤니케이션스 대표

최근 연이어 터진 코스닥기업의 비리, CEO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비윤리적이지만 합법적인 인수합병(M&A), 사내직원에 의한 기밀유출과 같은 미시적 위기가 급속히 대두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영속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한마디로 최고경영자는 '위기의 일상화' 속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위기는 주로 외부 환경의 도전으로 비롯된다. 그러나 일상화된 위기는 내부 환경으로부터의 도전이어서 흔히 무시되기 쉽다.

우수 인재의 퇴사, 주요 고객의 이탈, 고객과의 점진적 관계 악화 등은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되거나 방치된다. 결국 기업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일상화된 위기는 극복할 수 있나?

먼저 위기를 탐지하는 기업의 감각기관을 키워야 한다. 기업의 감각기능은 '커뮤니케이션'이다. 공중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위기신호를 받아들이고 다시 대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이 위기관리다.

둘째로 위기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위기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위기발생을 감지하는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을 만들어 평소에 훈련해야 한다.

한 외국기업은 모든 임직원들이 반드시 한달 이상의 휴가를 가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장기휴가 제도는 어떤 결원이 생겨도 조직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위기관리시스템이다. 한 두 명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기업시스템이 마비되는 경우가 흔한 우리 기업에는 무척 의미심장한 위기관리방안이다.

셋째로 평소에 위기를 예방해야 한다. 예방은 기업의 관계자산에서 비롯된다. 관계자산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무형자산이다. 지식자본이 21세기 기업의 경쟁력이듯이 관계자산은 21세기의 기업의 생존력이다.

넷째로 말을 잘해야 한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교훈이 적용된다.

기업이 공중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수사학적으로 잘 정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최근 정치권의 잇따른 설화(說話)는 대표적인 수사학적 실패라고 보여진다. 말 잘하는 CEO 뿐만 아니라 말 잘하는 기업이 위기관리도 잘한다.

경영자는 기업이 위기에 노출된 사실을 받아들여기가 무척 힘들다. 그러나 기업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제 무풍지대에서 유풍지대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다.

• 주요뉴스 •

정부 벤처투자 축소 배경과 파장

정부는 지난 2월 잇따른 벤처비리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벤처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정부 주도의 벤처 지원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벤처투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벤처 건전화 방안'을 기초로 예산안을 산정하는 만큼 정부의 벤처지원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벤처캐피털업계는 예산의 축소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정부가 '벤처 건전화 방안'에서 민간 벤처기관 및 전문투자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없이 벤처투자 조합 출자만 줄이는 것은 정책방향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 2002/09/12

'국민의 정부' IT성적 매긴다

정보통신부(장관 이상철)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윤창번)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5년간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분야는 △기술투자 △인력교육 △벤처정책 △수출정책 △거시IT산업의 국제경쟁력 △소프트웨어 △콘텐츠 △통신시장 유효경쟁 △통신시장 규제 △통신요금 △통신서비스 육성 △나노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전파·방송 등 정보통신정책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 정부' 정보통신정책은 IT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해 IMF 극복을 이끌고 기술과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투자에 비해 낮은 생산성과 벤처 육성과정의 도덕적 해이 등 실효도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 전자신문, 2002/09/13